

아동과 청소년의 형제자매관계 및 친구관계와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

이운영 장휘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형제자매 및 친구관계와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남녀 아동과 청소년(431명)들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두 가지 관계의 온정과 갈등은 5요인 성격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고 두 가지 관계의 온정과 갈등에 미치는 성별과 연령 및 성격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하였다. 형제자매관계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큰 온정을 경험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보다 더 큰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친구관계에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큰 온정을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보다 더 큰 갈등을 경험하였다. 두가지 관계는 성격특성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여학생이고, 연령이 낮으며, 높은 성실성과 호감성 및 외향성을 지닐 때 더 온정적 관계를 그리고 연령이 높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 때 더 갈등적 관계를 경험한다는 예측이 가능하였다. 친구관계에서는 여학생이고,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을 지닐 때 온정적인 관계를 그리고 연령이 높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낮은 호감성을 지닐 때 더 갈등적 관계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주요어: 형제자매관계, 친구관계, 5요인 성격특성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서 그들의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 그 중에서도 혈연관계인 형제자매관계는 일생동안 계속되는 관계인 반면 친구관계는 개인에 의해 선택된 관계라는 차이가 있지만, 양자는 개인을 지원하고 동료애를 경험하게 하며

행복과 자기존중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긍정적 사회화의 중요한 근원으로 작용한다(Sherman, Lansford, & Volling, 2006). 그러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온정이나 애정같은 긍정적 차원 외에 경쟁이나 갈등과 같은 부정적 차원도 함께 포함한다(장휘숙, 2008; Brody, Stoneman & McCoy, 1994;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Pike & Atzaba-Poria, 2003). 그 예로서 형제자매들 중에는 온정적, 애정적, 지원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형제자매들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갈등적이다. 그들은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해 혹은 원하는 물건을 갖기 위해서로 경쟁하고 갈등한다. Kramer(2006)는 형제자매들이 2-4세일 때 10분에 한번 정도로 갈등을 일으키며 이후 5-7세까지 갈등은 약간 감소되지만 여전히 계속된다고 보고하였다. 친구관계 역시 친사회적 행동과 친밀성, 신의와 같은 긍정적 속성과 경쟁 및 갈등과 같은 부정적 속성을 포함한다(Berndt, 2002; Hartup, 1996).

그러나 시간경과와 함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변화한다. 그 예로서 아동기를 지나 사춘기에 진입하면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형제자매들과의 시간은 감소하므로 형제자매간의 온정이나 가까움은 물론 갈등이나 경쟁도 현저하게 감소한다(Buhrmester & Furman, 1990). 이제 청소년들은 형제자매보다 친구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Updegraff, McHale & Crouter, 2002), 친구들은 이전에 가족에 의해 제공되었던 정서적 지원의 일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정서적 지원제공자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연구한 Furman과 Buhrmester(1992)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가장 빈번한 지원제공자는 부모였고 7학년 무렵에는 부모와 동일한 정도의 지원적 인물로 지각된 사람은 동성의 친구들이었으며 10학년에서는 친구들이 가장 빈번한 지원제공자라고 보고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은 아동기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여성들은 관계 형성의 기술이나 능력을 중요시하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경험한 결과로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성들은 남성들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Connidis(2001)같은 연구자들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형제자매를 더 가깝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지만 많은 연구들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에서는 성차가 없고 갈등이나 경쟁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 그 예로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장희숙(2009)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고 Stocker와 Lanthier 및 Furman(1997)도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형제자매관계에서 더 많은 경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herman과 Lansford 및 Volling(2006) 역시 형제자매관계에서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친구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은 여자 아동이나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아동이나 남자 청소년들보다 더 온정적이고 친밀한 친구관계를 경험한다고 보고하는가 하면(Markovits, Benson, & Dolensky, 2001; Parker & Asher, 1993) 관계의 질적 특성을 구분함이 없이 단순히 또래관계의 질에서 여자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남자 청소년들보다 더 우호적이라는 보고가 있으므로(한현아, 도현심, 2008) 아동과 청소년들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을 온정과 갈등의 두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성차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형제자매관계가 개인의 성격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한 연구들은 많이 있다.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과 아동의 성격특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Furman과 Lanthier(1996)는 5요인 성격특성 중 성실성은 일관성 있게 온정과는 정적 상관을 그리고 갈등과는 부적 상관을 이루는 성격특성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호감성 역시 성실성 보다는 일관성이 적기는 하였지만 온정과는 정적 상관을 그리고 갈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성격특성이었다. Big Five 성격검사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을 연구한 Lanthier (2007)도 높은 호감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온정적이고 덜 갈등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와 5요인 성격특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장휘숙(2009)은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할수록 남녀 모두 더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 및 성실성을 지니고 있고, 갈등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적은 호감성과 성실성 및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형제자매관계는 개인의 성격특성과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 일찍이 형제자매관계와 기질의 관련성을 연구한 Brody와 Stoneman 및 Burke(1987)는 지극히 활동적이고 강한 정서성과 낮은 지속성을 갖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형제자매들에 대해 더 부정적 행동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tocker와 Dunn 및 Plomin((1989)은 순위 형제자매들의 수줍음은 덜 경쟁적인 형제자매관계와 연합되고, 손아래 형제자매의 사교성은 더 긍정적인 형제자매관계와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형제자매관계와 성격특성의 관련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친구관계와 기질이나 성격특성과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가 적기는 하지만, Stocker와 Dunn(1990)은 아동중기 동안 사교적인 아동들이 친구와 더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아동의 정서성은 문제있는 친구관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하여 기질과 친구관계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함께 연구한 Pike와 Atzaba-Poria(2003)는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 양자의 부정적 측면은 정서성과 연결되고, 긍정적 측면들은 사교성 및 활동성과 연합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는가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남녀 아동과

중학교 3학년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질과 형제자매관계 및 친구관계를 연구한 장휘숙(2008)은 기질적 특성 중 정서성이 높을 때 형제자매관계나 친구관계의 갈등이 커지고 활동성과 사교성이 높을 때 양자의 관계는 더 온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기질은 형제자매관계보다는 친구관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질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Dunn, Slomkowski, & Beardsall, 1994; Updegraff, McHale & Crouter, 2002; Raffaelli, 1997). 특히 Slomkowski와 Dunn(1992)은 아동들은 형제자매보다는 친구들을 설득하고 협상할 가능성이 더 많으며, 논쟁 시에는 형제자매의 견해보다는 친구의 견해를 고려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고하여 양자의 관계는 성격특성과의 관련성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남녀 아동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은 5요인 성격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동시에 두 가지 관계의 온정과 갈등에 미치는 성별과 연령 및 성격특성의 상대적 영향력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두 가지 관계의 질적 차이도 확인하려고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형제자매관계를 연구하므로 형제자매가 없는 학생

들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 대상자는 초등학생 136명(남: 71명, 여: 65명)과 중학생 160명(남: 77명, 여: 83명) 그리고 고등학생 135명(남: 62명, 여: 73명)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초등학교 남학생 9.25세($SD=.470$), 여학생 9.26세($SD=.443$), 중학교 남학생 12.05세($SD=.223$), 여학생 12.07세($SD=.261$) 그리고 고등학교 남학생 15.08세($SD=.326$), 여학생 15.08세($SD=.277$)였다. 설문은 담임교사에 의해 수업시간을 통해 실시되었고 설문실시를 위해 약 30-40분이 소요되었으며, 설문조사는 2011년 2월 초부터 약 2주 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형제자매관계 질문지

장휘숙(2007)이 제작한 형제자매관계 질문지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 실시될 수 있는 이 질문지는 온정과 갈등의 두가지 차원을 포함하며 전체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가지 차원 중 온정차원은 12개의 문항(예: 나는 내 형제자매를 믿고 의지한다)을 그리고 갈등차원은 10개의 문항(예: 나는 형제자매와 자주 말다툼을 한다)을 포함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형 척도로 설계되어 있다. 온정 차원에서의 높은 점수는 형제자매들이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반면, 갈등차원에서의 높은 점수는 형제자매관계가 갈등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Cronbach's α 로 계산한 이 질문지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온정요인 .924 그리고 갈등요인 .840이었다.

친구관계 질문지

장휘숙(2007)이 제작한 친구관계 질문지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형제자매관계 질문지에서 “형제자매”라는 단어 대신에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척도 역시 형제자매관계 질문지와 동일하게 온정과 갈등의 두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전체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가지 차원 중 온정차원은 12개의 문항(예: 나는 내 친구를 좋아한다)을 그리고 갈등차원은 10개의 문항(예: 나는 친구 때문에 자주 화를 낸다)을 포함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차원에서의 높은 점수는 친구관계가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 갈등차원에서의 높은 점수는 친구관계가 갈등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로 계산한 이 질문지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온정요인 .893 그리고 갈등요인 .885였다.

성격검사

Barbaranelli와 Caprara, Rabasca 및 Pastorelli (2003)가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용 5요인 성격검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원래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을 각 요인별(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정서적 불안정성, 성실성, 호감성)로 5문항씩 선별하여 전체 25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와 같은 경향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로 계산한 이 질문지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외향성 .811, 경험에 대한 개방성 .836, 정서적 불안정성 .856, 성실성 .899 그리고 호감성 .895였다.

결 과

1. 성별과 연령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차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남, 녀)과 연령(초, 중, 고)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온정과 갈등 각각을 종속변

표 1. 성별과 연령에 따른 형제자매 온정과 갈등의 사례수와 평균(표준편차)

성별	연령	N	온정	갈등
			평균(SD)	평균(SD)
남	초	71	3.44(1.07)	2.20(0.82)
	중	77	3.15(1.08)	2.62(0.87)
	고	62	2.98(0.87)	2.57(0.87)
	전체	210	3.20(1.03)	2.46(0.87)
여	초	65	3.53(0.90)	2.30(0.82)
	중	83	3.49(0.92)	2.56(0.71)
	고	73	3.16(1.08)	2.80(0.82)
	전체	221	3.40(0.98)	2.57(0.81)
전체	초(a)	136	3.48(0.99)	2.25(0.82)
	중(b)	160	3.32(1.01)	2.59(0.79)
	고(c)	135	3.08(0.99)	2.69(0.87)
	전체	431	3.30(1.01)	2.52(0.84)

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표 2는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2에 의하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에서 성별의 주효과($F(1,425)=4.466, p<.05$)와 연령의 주효과($F(2,425)=5.885, p<.01$)가 유의하였고,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온정적 형제자매관계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연령의 주효과에 대한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온정적 형제자매관계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에서는 연령의 주효과($F(2,425)=10.445, p<.001$)만 유의하였고, 성별의 주효과와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보다 더 낮은 점수를

표 2. 성별과 연령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 대한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Eta squared	Tukey 사후검증
온정	성별	4.424	1	4.424	4.466*	.010	
	연령	11.661	2	5.830	5.885**	.027	a>c
	성별*연령	1.249	2	.624	.603	.003	
	오차	421.053	425	.991			
	전체	5121.153	431				
갈등	성별	.914	1	.914	1.350	.003	
	연령	14.139	2	7.070	10.445***	.047	a<b,c
	성별*연령	1.617	2	.809	1.195	.006	
	오차	287.642	425	.677			
	전체	3034.140	431				

* $p<.05$, ** $p<.01$, *** $p<.001$ 이하 동일함.

표 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의 사례수와 평균(표준편차)

성별	연령	N	온정	갈등
			평균(SD)	평균(SD)
남	초	71	3.45(.92)	1.89(.66)
	중	77	3.57(.81)	2.01(.61)
	고	62	3.52(.67)	2.30(.67)
	전체	210	3.51(.81)	2.05(.66)
여	초	65	3.83(.63)	1.90(.56)
	중	83	4.11(.65)	1.81(.54)
	고	73	4.03(.63)	2.14(.60)
	전체	221	4.00(.64)	1.95(.58)
전체	초(a)	136	3.63(.81)	1.90(.61)
	중(b)	160	3.85(.78)	1.91(.58)
	고(c)	135	3.80(.69)	2.21(.64)
	전체	431	3.76(.77)	2.00(.62)

얻고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2. 성별과 연령에 따른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차이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성별(남, 여)과 연령(초, 중, 고)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온정과 갈등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표 4는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4에 의하면, 친구관계의 온정에서 성별의 주효과($F(1,425)=46.813, p<.001$)만 유의하였고 연령의 주효과와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친구관계의 온정요인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온정적 친구관계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친구관계의 갈등에서는 연령의 주효과($F(2,425)=12.015, p<.001$)만 유의하였고 성별의 주효과와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간에는 차이가 없어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보다 더 갈등적 친구관계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표 4. 성별과 연령에 따른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 대한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Eta squared	Tukey 사후검증
온정	성별	24.740	1	24.740	46.813***	.099	
	연령	3.041	2	1.520	2.877	.013	
	성별*연령	.529	2	.264	.500	.002	
	오차	224.605	425	.528			
	전체	6360.174	431				
갈등	성별	1.374	1	1.374	3.725	.009	
	연령	8.865	2	4.432	12.015***	.054	a,b<c
	성별*연령	.918	2	.459	1.244	.006	
	오차	156.789	425	.369			
	전체	1890.260	431				

표 5. 성별과 연령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및 갈등과 5요인 성격특성의 상관

	성별	연령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정서적 불안정성	성실성	호감성
온정	남	초	.453***	.480***	-.355**	.508***	.521***
		중	.310**	.070	-.205	.364**	.216
		고	.134	.315*	-.045	.041	.093
	여	초	.358**	.319*	-.138	.458***	.426***
		중	.223*	.357**	-.206	.393***	.479***
		고	.229*	.268*	-.096	.472***	.363**
갈등	남	초	-.013	-.120	.469***	-.298*	-.021
		중	-.103	-.117	.467***	-.226*	-.063
		고	-.271*	-.166	.340**	-.219	-.246
	여	초	-.334**	-.220	.209	-.270*	-.483***
		중	-.086	-.170	.539***	-.068	-.162
		고	-.038	-.083	.408***	-.052	-.036

3. 형제자매관계와 성격특성의 관계

성별과 연령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및 갈등과 5요인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온정 및 갈등과 5요인 성격특성간의 상관을 제시한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초등학교 남학생들에서 5요인 성격특성 중 외향성($r=.453, p<.001$)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r=.480, p<.001$), 성실성($r=.508, p<.001$) 및 호감성($r=.521,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r=-.355,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중학교 남학생들은 외향성($r=.310, p<.01$) 및 성실성($r=.364,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r=.315,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대조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일관성있게 외향성(초등: $r=.358, p<.01$, 중: $r=.223, p<.05$, 고: $r=.229, p<.05$)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초등: $r=.319, p<.05$, 중: $r=.357, p<.01$, 고:

$r=.268, p<.05$), 성실성(초등: $r=.458, p<.001$, 중: $r=.393, p<.001$, 고: $r=.472, p<.001$) 및 호감성(초등: $r=.426, p<.001$, 중: $r=.479, p<.001$, 고: $r=.363,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남학생들은 정서적 불안정성(초등남: $r=.469, p<.001$, 중남: $r=.467,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성실성(초등남: $r=-.298, p<.05$, 중남: $r=-.226, p<.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외향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r=-.271, p<.05$)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r=.340,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형제자매관계 갈등은 외향성($r=-.334, p<.01$)과 성실성($r=-.270, p<.05$) 및 호감성($r=-.483,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정서적 불안정성(중: $r=.539, p<.001$; 고: $r=.40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종합하면 초등학교 남학생들은 더 높은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호감성을 지니고 더 낮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수록 그리고 중학

교 남학생들은 더 높은 외향성과 성실성을 지닐수록, 그리고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더 높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닐수록 형제자매 관계가 더 온정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일관성 있게 더 높은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및 호감성을 지닐수록 더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남학생들은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고 성실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외향성이 낮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여학생들은 더 낮은 외향성과 성실성 및 호감성을 지닐수록, 중학교 및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형제자매관계가 더 갈등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상관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및 갈등과 5요인 성격특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므로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 미치는 성별과 연령 및 5요인 성격특성은 물론 성별과 성격특성 및 연령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 효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남학생을 -1, 여학생을 +1로, 초등학생을 -1, 중학생을 0, 그리고 고등학생을 +1로 더미 코딩한 후, 1 단계에서는 성별을, 2단계에서는 연령을, 3단계에서는 5요인 성격특성을, 4단계에서는 성별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항을 그리고 5단계에서는 연령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각각의 설명량을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온정요인에서 각 단계별 회귀모형은 각각 $F(1,429)=4.061$, $p<.05$, $F(2,428)=8.036$, $p<.001$, $F(7,423)=20.105$,

표 6.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B	Beta	t	ΔR^2
성별		성별	.098	.097	2.015*	.009*
연령		연령	-.209	-.164	-3.451**	.027**
성격특성	외향성		.117	.116	2.218*	
	경험에 대한 개방성		.088	.087	1.583	
	정서적 불안정성		-.132	-.131	-2.992**	.213***
	성실성		.231	.229	4.214***	
성별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	호감성		.141	.140	2.581*	
	성별*외향성		-.031	-.031	-.611	
	성별*경험에 대한 개방성		.008	.008	.153	
	성별*정서적 불안정성		.065	.064	1.474	.011
연령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	성별*성실성		.046	.045	.842	
	성별*호감성		.077	.076	1.400	
	연령*외향성		-.025	-.019	-.365	
	연령*경험에 대한 개방성		.032	.024	.456	
연령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	연령*정서적 불안정성		.007	.058	1.275	.005
	연령*성실성		.000	.000	.001	
	연령*호감성		-.035	-.027	-.470	

$p < .001$, $F(12,418)=12.266$, $p < .001$, 그리고 $F(17,413)=8.759$, $p < .001$ 로서 유의하였다. 갈등요인에서도 각 단계별 회귀모형은 각각 $F(1,429)=4.789$, $p < .05$, $F(2,428)=10.348$, $p < .001$, $F(7,423)=13.787$, $p < .001$, $F(12,418)=8.937$, $p < .001$, $F(17,413)=7.324$, $p < .001$ 로서 유의하였다.

우선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에서는 표 6과 같이 형제자매의 성별($\beta=.097$, $p < .05$)과 연령($\beta=-.164$, $p < .01$), 5요인 성격특성 중 외향성($\beta=.116$, $p < .05$)과 정서적 불안정성($\beta=-.131$, $p < .01$), 성실성($\beta=.229$, $p < .001$) 그리고 호감성($\beta=.140$, $p < .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온정 전체 변량의 24.9%를 설명하였다. 이 중 성별은 형제자매관계 온정변량의 0.9%를 설명하였고 연령은 2.7%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성격특성은 21.3%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성별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항과 연령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항들은 각각 1.1%와 0.5%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5가지 변인 중 성실성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이었고, 결국 여학생이고 연령이 낮으며, 높은 성실성과 호감성 및 외향성을 지니면서 낮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 때 더 온정적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에서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형제자매의 연령($\beta=.206$, $p < .001$)과 5요인 성격특성 중 정서적 불안정성($\beta=.362$, $p < .001$)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갈등요인 전체 변량의 18.6%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별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을 0.4% 설명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연령은 추가적으로 4.2% 설명하였으며, 5요인

표 7.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B	Beta	t	ΔR^2
성별	성별		.051	.060	1.255	.004
연령	연령		.219	.206	4.365***	.042***
성격특성	외향성		.012	.015	.271	
	경험에 대한 개방성		-.035	-.042	-.729	
	정서적 불안정성		.304	.362	7.944***	.140***
	성실성		-.056	-.067	-1.180	
	호감성		.026	.031	.546	
성별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	성별*외향성		-.007	-.009	-.168	
	성별*경험에 대한 개방성		-.019	-.023	-.432	
	성별*정서적 불안정성		-.067	-.079	-1.739	.016
	성별*성실성		.049	.057	1.021	
	성별*호감성		-.109	-.082	-1.292	
연령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	연령*외향성		.046	.043	.808	
	연령*경험에 대한 개방성		.066	.058	1.100	
	연령*정서적 불안정성		.020	.018	.381	.017
	연령*성실성		.109	.102	1.877	
	연령*호감성		.029	.027	.466	

성격특성 중 정서적 불안정성은 14%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성별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항 및 연령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항은 각각 1.6%와 1.7%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5가지 변인 중 중 정서적 불안정성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요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이었고, 결국 연령이 높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 때 더 갈등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한다고 예측할 수 있었다.

4. 친구관계와 성격특성의 관계

성별과 연령에 따른 친구관계의 온정 및 갈등과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친구관계의 온정 및 갈등과 5요인 성격특성의 상관을 제시한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친구관계의 온정은 초등학교 남학생들에서는 5요인 성격특성 중 외향

성($r=.694, p<.001$)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r=.486, p<.001$), 성실성($r=.588, p<.001$) 및 호감성($r=.62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중학교 남학생들에서도 외향성($r=.669, p<.001$)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r=.266, p<.05$), 성실성($r=.230, p<.05$) 및 호감성($r=.44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외향성($r=.532, p<.001$)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r=.412, p<.01$) 및 호감성($r=.425,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초등학교 여학생들 역시 친구관계의 온정은 외향성($r=.382, p<.01$)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r=.331, p<.01$), 성실성($r=.443, p<.001$) 및 호감성($r=.396,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중학교 여학생들은 외향성($r=.478, p<.001$)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r=.276, p<.05$) 및 호감성($r=.446, p<.001$)과 그리고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외향성($r=.523, p<.001$)과 성실성($r=.265, p<.05$) 및 호감성($r=.384,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8. 성별과 연령에 따른 친구관계의 온정 및 갈등과 5요인 성격특성의 상관

	성별	연령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정서적 불안정성	성실성	호감성
온정	남	초	.694***	.486***	-.203	.588***	.626***
		중	.669***	.266*	-.057	.230*	.443***
		고	.532***	.412**	-.044	.227	.425**
	여	초	.382**	.331**	-.011	.443***	.396**
		중	.478***	.276*	-.010	.084	.446***
		고	.523***	.089	-.187	.265*	.384**
갈등	남	초	-.019	-.058	.490***	-.227	-.328**
		중	-.089	-.037	.435***	-.035	-.096
		고	-.188	-.024	.542***	-.102	-.125
	여	초	.079	-.061	.469***	-.203	-.259*
		중	-.098	-.191	.449***	-.151	-.386***
		고	-.044	-.076	.523***	-.059	-.191

친구관계에서의 갈등은 초·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들 모두 정서적 불안정성(초남: $r=.490, p<.001$, 중남: $r=.435, p<.001$, 고남: $r=.542, p<.001$, 초여: $r=.469, p<.001$, 중여: $r=.449, p<.001$, 고여: $r=.52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초등학교 남학생($r=-.328, p<.01$)과 여학생($r=-.259, p<.05$) 및 중학교 여학생들($r=-.386, p<.001$)은 호감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종합하면 남녀 모두 높은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호감성을 지닐수록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남학생 및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높은 성실성을 지닐수록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경험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들 모두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수록 그리고 초등학교 남녀 학생과 중학교 여학생들은 낮은 호감성을 지닐수록 더 갈등적 친구

관계를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상관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라 친구관계의 온정 및 갈등과 5요인 성격특성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므로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 미치는 성별과 연령 및 5요인 성격특성은 물론 성별과 성격특성 및 연령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 효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형제자매관계에서와 동일하게 남학생을 -1, 여학생을 +1로, 초등학생을 -1, 중학생을 0, 그리고 고등학생을 +1로 더미 코딩한 후, 1 단계에서는 성별을, 2단계에서는 연령을, 3단계에서는 5요인 성격특성을, 4단계에서는 성별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항을 그리고 5단계에서는 연령과 성격특성들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각각의 설명량을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온정요인에서 각 단계별 회귀모형은 각각 $F(1,429)=48.912$,

표 9. 친구관계의 온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B	Beta	t	ΔR^2
성별		성별	.246	.320	6.994***	.102***
연령		연령	.067	.070	1.524	.005
성격특성		외향성	.319	.415	9.253***	
		경험에 대한 개방성	.035	.045	.955	
		정서적 불안정성	-.019	-.025	-.655	.338***
		성실성	.032	.041	.879	
		호감성	.161	.209	4.496***	
성별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		성별*외향성	-.078	-.100	-2.315*	
		성별*경험에 대한 개방성	-.020	-.025	-.584	
		성별*정서적 불안정성	.005	.006	.157	.011
		성별*성실성	-.001	-.001	-.015	
연령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		성별*호감성	.088	.011	.230	
		연령*외향성	.012	.012	.263	
		연령*경험에 대한 개방성	.040	.038	.869	
		연령*정서적 불안정성	-.005	-.005	-.115	.005
	연령*성실성	-.085	-.087	-1.914		
	연령*호감성	.012	.012	.240		

$p < .05$, $F(2,428)=25.693$, $p < .001$, $F(7,423)=48.553$, $p < .001$, $F(12,418)=29.252$, $p < .001$, 그리고 $F(17,413)=20.819$, $p < .001$ 로서 유의하였다. 갈등요인에서도 각 단계별 회귀모형은 각각 $F(1,429)=49.123$, $p < .05$, $F(2,428)=10.718$, $p < .001$, $F(7,423)=23.163$, $p < .001$, $F(12,418)=13.692$, $p < .001$, $F(17,413)=10.435$, $p < .001$ 로서 유의하였다.

친구관계의 온정에서는 표 9와 같이 성별($\beta=.320$, $p < .001$)과 5요인 성격특성 중 외향성($\beta=.415$, $p < .001$) 및 호감성($\beta=.209$, $p < .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온정 전체 변량의 44.0%를 설명하였다. 이 중 성별은 형제자매 관계 온정변량의 10.2%를 설명하였고 5요인 성격특성은 33.8%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은 0.5%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

영향 및 연령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영역 역시 각각 1.1%와 0.5%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5가지 변인 중 외향성은 친구관계의 온정요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이었고, 여학생이고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을 지닐 때 더 온정적인 친구관계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표 10과 같이 친구관계의 갈등에서는 연령($\beta=.201$, $p < .001$)과 5요인 성격특성 중 정서적 불안정성($\beta=.447$, $p < .001$) 및 호감성($\beta=-.126$, $p < .05$)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갈등 전체 변량의 26.9%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을 0.7% 설명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연령은 추가적으로 4.0%를 설명하였으며, 5요인 성격특성 중 정서적 불안정성과 호감성은 22.9%를 추

표 10. 친구관계의 갈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B	Beta	t	ΔR^2
성별	성별		-.053	-.085	-1.777	.007
연령	연령		.158	.201	4.260	.040***
성격특성	외향성		.008	.013	.263	
	경험에 대한 개방성		-.014	-.023	-.426	
	정서적 불안정성		.279	.447	10.419***	.229***
	성실성		.018	.029	.540	
	호감성		-.079	-.126	-2.365*	
성별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	성별*외향성		-.031	-.048	-.973	
	성별*경험에 대한 개방성		.005	.008	.152	
	성별*정서적 불안정성		-.025	-.040	-.922	.005
	성별*성실성		-.003	-.005	-.096	
연령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	성별*호감성		-.015	-.023	-.435	
	연령*외향성		-.048	-.060	-1.190	
	연령*경험에 대한 개방성		-.060	-.072	-1.423	
	연령*정서적 불안정성		.069	.081	1.453	.018
	연령*성실성		.052	.065	1.257	
	연령*호감성		.084	.105	1.889	

각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성별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항 및 연령과 성격특성의 상호작용항은 친구관계의 갈등을 각각 0.5%와 1.8%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5가지 변인 중 정서적 불안정성은 친구관계의 갈등요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이었고, 결국 연령이 높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낮은 호감성을 지닐 때 더 갈등적 친구관계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논 의

이 연구는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가 개인의 성격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남녀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N=431) 성별과 연령에 따라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온정과 갈등은 5요인 성격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두 가지 관계의 온정과 갈등에 미치는 성별과 연령 및 성격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서 더 큰 온정을 경험하고 갈등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형제자매관계에서 더 큰 온정을 경험하고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보다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친구관계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보다 더 큰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형제자매관계와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초등학교 남자 아동은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및 호감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낮을수록, 남자 중학생은 외향성과 성실성이 높을

수록 그리고 남자 고등학생들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더 온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였다. 반면에 초·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일관성있게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및 호감성이 높을수록 더 온정적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에서는 남자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경우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성실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자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외향성이 낮을수록,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더 큰 갈등을 경험하였다. 또한 여자 초등학생들은 외향성과 성실성 및 호감성이 낮을수록, 여자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더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여학생이고 연령이 낮으며 높은 성실성과 호감성 및 외향성을 지닐 때 더 온정적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고, 연령이 높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 때 더 갈등적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예측될 수 있었다. 또한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과 갈등요인에 대해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성격특성은 각각 성실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이었다.

친구관계와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남녀 모두에서 외향성과 호감성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여학생을 제외하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녀 초등학생과 남자 중학생 및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실성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더 온정적이었다. 또한 모든 연구대상자들에서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초등학교 남녀 학생과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에는 호감성이 낮을수록 더 갈등적 친구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여학생이고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을 지닐 때 더 온정적 친구관계를 그리고 연령이 높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낮은 호감성을 지닐 때 더 갈등적 친구관계를 경험할 것으로 예

측될 수 있었다. 친구관계의 온정요인과 갈등요인에 대해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각각 외향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이었다. 결국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온정적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경험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 가지 관계의 갈등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성실성에 의해, 친구관계의 온정은 외향성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양자 관계의 갈등은 일관성 있게 정서적 불안정성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제자매관계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큰 온정을 경험하고 갈등에서는 성차가 없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중년의 성인들을 연구한 Connidis (2001)의 주장과 일치하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갈등에서만 성차가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장휘숙, 2009; Sherman, Lansford & Volling, 2006; Stocker, Lanthier & Furman, 1997)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어린 연령에서는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더 온정적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형제자매관계의 질적 특성은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형제자매 간의 온정은 감소하였고 갈등은 증가하였으므로 온정과 갈등에서의 성차도 연령과 함께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므로 이 연구에 포함된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대학생이 되었을 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형제자매 간에 더 큰 갈등을 경험하고 온정에서는 성차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므로 종단연구를 통해 전생애 동안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에서의 변화가 추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친구관계에서는 선행연구들(한현아, 도현심, 2008; Markovits, Benson, & Dolensky, 2001; Parker & Asher, 1993)과 일치되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큰 온정을 경험하고 갈등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친구관계의 온정요인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갈등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친구관계와 형제자매관계는 질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더욱이 친구관계에서의 갈등 점수는 형제자매간의 갈등점수보다 더 낮아 아동들은 형제자매보다는 친구들을 설득하고 협상할 가능성이 더 많고, 논쟁시에도 형제자매의 견해보다는 친구의 견해를 고려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Slomkowski와 Dunn(1992)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은 다른 어떤 관계에서보다 형제자매관계에서 더 큰 갈등을 경험한다는 Furman과 Buhmester(1985)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예상한대로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는 개인의 성격특성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특히 성실성과 호감성 및 외향성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관련되어 있어 Furman과 Lanthier(1996)의 연구는 물론 장휘숙(200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성실성이 낮을수록 형제자매관계는 갈등적인 경향이 있어 선행연구(장휘숙, 2009; Lanthier, 2007) 결과와 일치하였다. 친구관계에서는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및 호감성이 높을수록 더 온정적이었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호감성이 낮을수록 더 갈등적인 경향이 있어 친구관계 역시 개인의 성격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흥미롭게도 정서적 불안정성은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갈등요인에 대해 가장 큰 설명량을 갖는 변인이어서 형제자매 관계와 친구관계 양자의 부정적 측면은 정서성과 연결된다는 Pike와 Atzabaporia(2003)의 연구는 물론 기질과 형제자매관계 및 친구관계를 연구한 장휘숙(200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특히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요인은

성격특성 중 많은 일을 책임감 있게 잘 처리하고 자제할 줄 아는 성실성에 의해 그리고 친구관계는 타인과 사교적이고 온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외향성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나 Costa와 McCrae(1986)가 제안한 성격의 특징적 특성과 일치하였을 뿐 아니라 혈연관계인 형제자매관계와 비혈연관계인 친구관계가 질적으로 상이함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오로지 질문지만을 사용하여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측정함으로써 공유된 방법변량(shared method variance)에 의해 변인들 사이의 관련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고 아동과 청소년들을 횡단적으로 표집하여 비교함으로써 연령집단간의 차이만을 비교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질문지와 함께 면접과 같은 다른 자료 수집방법들이 함께 사용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종단적으로 추적함으로써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사회적 맥락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의 대부분이 형제자매관계만을 연구하거나 친구관계만을 연구하였을 뿐 아니라 친구관계와 성격특성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를 함께 연구하는 동시에 두 가지 관계에 미치는 성별과 연령 및 성격특성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의 중요한 사회적 맥락을 형성하는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의 특성과 두 가지 관계의 질적 차이가 규명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장휘숙 (2007). 형제자매의 구성과 친구관계, 애착 및 생활만족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2), 53-70.
- 장휘숙 (2008). 기질과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1), 69-87.
- 장휘숙 (2009). 대학생의 형제자매관계와 성격특성 및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33-48.
- 한현아, 도현심 (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 Barbaranelli, C., Caprara, G. V., Rabasca, A., & Pastorelli, C. (2003). A questionnaire for measuring the Big Five in late childh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645-664.
- Berndt, T. J. (2002). Friendship quality and social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 7-10.
- Brody, G. H., Stoneman, Z., & Burke, M. (1987). Child temperament, maternal differential behavior, and sibling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54-362.
- Brody, G. H., Stoneman, Z., & McCoy, J. K. (1994). Associations of maternal and paternal direct and differential behavior with sibling relationships: Contemporaneous and longitudinal analyses. *Child Development*, 63, 82-92.
- Buhrmester, D., & Furman, W. (1990). Perceptions of sibling relation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87-1398.

- Connidis, I. A. (2001). *Family ties and aging*. Thousand Oaks, CA: Sage.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6). Cross-sectional studies of personality in a national sample: I.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urvey measures. *Psychology and Aging, 1*, 140-143.
- Dunn, J., Slomkowski, C., & Beardsall, L. (1994). Sibling relationships from the preschool period through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15-324.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qualities of sibling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6*, 448-461.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Furman, W., & Lanthier, R. (1996). Personality and sibling relationships. In G. Brody (Ed.), *Sibling relationships: Their causes and consequences*. Norwood, NJ: Ablex, 127-146.
-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 1-14.
- Kramer, I. (2006). Commentary in "How your siblings make you who are" by J. Kluger, *Time*, 46-55.
- Lanthier, R. P. (2007). Personality traits and sibling relationships in emerging adults'. *Psychological Report, 100*, 672-674.
- Markovits, H., Benson, J., & Dolensky, E. (2001). Evidence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internal models of peer interactions that are gender differentiated. *Child Development, 72*, 879-886.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ike, A., & Atzaba-Poria, N. (2003). Do sibling and friend relationships share the same temperamental origins? A twin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4), 598-611.
- Raffaelli, M. (1997). Young adolescents' conflict with sibling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 539-558.
- Sherman, A. M., Lansford, J. E., & Volling, B. L. (2006). Sibling relationship and best friendship young adulthood: Warmth, conflict, and well-being. *Personal Relationships, 13*(2), 151-165.
- Slomkowski, C., & Dunn, J. (1992). Arguments and relationships within the family: Differences in children's disputes with mother and sibl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19-924.
- Stocker, C. M., & Dunn, J. (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child: Links with friendships and peer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227-244.
- Stocker, C. M., Dunn, J., & Plomin, R. (1989). Sibling relationships: Links with child temperament, maternal behavior, and family structure. *Child Development, 60*, 715-727.
- Stocker, C. M., Lanthier, R. P., & Furman, W.

(1997).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 210-221.

Development, 11(2), 182-204.

Updegraff, K. A., McHale, S. M., & Crouter, A. C. (2002). Adolescents' sibling relationship and friendship experiences: Developmental patterns and relationship linkages. *Social*

1차 원고 접수: 2011. 10. 04

수정 원고 접수: 2011. 11. 09

최종 게재 결정: 2011. 11. 10

The Relationships between Sibling and Friends Relationships and 5-Factor Personality Traits

Woon-Yeong Lee Hwee-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ibling and friends relationships and 5-factor personality traits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Results revealed in sibling relationships female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d more warmth than ma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high/middle school ones had more conflict than elementary school ones. In friends relationships female had more warmth than male and high school ones had more conflict th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ones. Both relationship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personality traits. As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warm sibling relationships in condition of female, low age, high conscientiousness, agreeableness and extraversion and conflictual sibling ones in condition of high age and high neuroticism were expected. Also warm friends relationships in condition of female, high extraversion and agreeableness and conflictual friends ones in condition of high age, high neuroticism and low agreeableness were expected.

Keywords: sibling relationships, friends relationships, 5-factor personality traits